

보도시점 2025. 9. 3.(수) 07:30 (2025. 9. 3.(수) 석간)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, 경총 「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(CHO) 간담회」 참석

- 노조법 2·3조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정부·재계 간 적극적 소통에 나서
- 김영훈 장관은 산업생태계 전반의 참여·협력·상생 패러다임 강조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9월 3일(수) 오전 7시 30분,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개최한 「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(CHO) 간담회」에 참석했다. 간담회에는 삼성, SK, 현대차, LG,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.

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·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마련되었다.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하여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.

김영훈 장관은 “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.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아울러 “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,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다.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·협력·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.”라며 참석자들의 관심과 발상의 전환을 당부하면서 “앞으로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해나가겠다.”라고 전했다.

붙임 1.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요

2. 장관 인사말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서명석 (044-202-7611)
		담당자	서기관	유현경 (044-202-7609)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은경 (044-202-7587)
		담당자	사무관	김송이 (044-202-7589)



☐ **목 적**

- ❶노조법 2·3조 개정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경영계와 소통
 ❷경영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·반영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 공유

☐ **일시 및 장소**

- 9.3. (수) 07:30 ~ 09:00,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(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)

☐ **참석대상 (총 30명 내외)**

- (고용노동부) 장관, 노동정책실장, 노사협력정책관 등
- (경영자총협회) 회장,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(CHO) 23명

☐ **간담회 진행순서**

※ 인사말씀까지 공개

시 간	내 용		비 고
07:30~07:40 (10')	■ 인사 말씀		경총회장 → 장관
07:40~08:00 (20')	■ 안건 발표	조찬	노동정책실장
08:00~08:50 (50')	■ 자유토론		
08:50~09:00 (10')	■ 마무리 말씀		

□ 반갑습니다.

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.

○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
CHO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
□ 어제(9.2.)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
의결되었습니다. 이에 내년 3월 초순경*
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

* '25.9.9. 관보게재(예정) → '26.3.10. 법 시행(예정)

□ 그간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

기업 운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는
경영계, 특히 인사노무 담당자분들의 여러 부담과 우려도
잘 알고 있습니다.

○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,

정부는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에서 우려하시는
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
방안을 마련해가겠습니다.

○ 그동안 경총, 암참, 유로참 등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
나누며 약속드린 대로 현장지원 TF를 구성하여 다양한
현장의견에 대해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활발하게 소통하면서
구체적인 지침·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불확실성을
없애겠습니다.

- 아울러 지역·업종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함께 진단하고, 교섭 표준모델, 시뮬레이션, 그밖에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□ 그러나, 정부 홀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으로 법 취지가 현장에 온전히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.

- 지금이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, 노사정이 협력해야만 이 법이 노동시장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입니다.

- 우리 산업계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모델을 만드는데 경영계가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.

□ 마지막으로 경영계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정법이 무분별한 교섭, 불법파업에 대한 용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- 아울러 원하청이 생산성 있는 의제로 대화하여 격차가 완화되고, 상생의 문화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에도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해나가겠습니다.
- 기업과 노동자가 ‘진짜 성장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온 힘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□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, 오늘 이 자리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